

# 생산적 논쟁 위해선 ‘중립적인 책’ 필요하다

## 상반된 논리를 충분히 생각해 주는 책을 패키지로

박사 | 북칼럼니스트

나는 논쟁을 통해 생각을 다듬는 편이다. 스프링 파트너가 없다면 내 생각의 혈류는 정지하고 만다. 나의 수많은 논쟁 상대들은 내게 화두를 던져주고,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에 타당한 의혹을 제기하며, 새로운 생각의 숨결을 불어넣고, 좀더 깊이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여기서도 어김없이 존재한다. 스프링파트너와의 절도 있는 복싱 연습은 길거리 개싸움으로 전락한다. 서로의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치고, 상대방의 빈정거림을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고, 상대방의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지지 않기 위해 꼬투리를 잡고, 보이지 않는 먹살 드잡이는 급기야는 인신공격으로까지 발전한다. 관계는 깨지고 양금은 남는다. 논쟁의 처참한 결과다.

나의 경우, 이러한 논쟁 아닌 논쟁은 주로 책을 읽던 도중 생겨난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 사람이 그러는데 ○○하대”로 시작한 이야기는 빨간 얼굴로 씩씩거리며 끝이 난다. 온전히 내

생각이 되지 못한, 저자를 대신한 대리전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록 서로에게 당혹감만 줄 뿐이다.

나는 저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해 안달하고, 상대방의 반론은 상식적인, 혹은 비상식적인 수준을 넘지 못한다. 급기야 내가 답답함을 참지 못해 책을 집어던지며 “읽고 얘기해!”를 외치고, 상대방이 “왜 내가 그 책을 꼭 읽어야 해?”로 반격하면 논쟁은 일단락되지만 여운은 오래간다. 그 양금은 다음 논쟁 때 위력을 발휘하기 십상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다. 싸움을 붙이는 대부분의 책들은 어떤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다. 이 세상의 여러 풍부한 논거들 중에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들만 짜깁기 해놓은 책을 읽는 것이 위험하다는 지적에서는 나도 멈칫한다.

입장이 깊이 있다 하더라도 반론의 여지는 어디나 있다. 반대의 입장도 귀 기울여 듣기만 하면 설득력 있고 타당할 수 있다. 그 입장이 옳건 그르건 간에, 모든 논거와 증거들이 하나의 결

그러므로 제대로 된 논쟁을 위해서는 “중립적인 책”이 필요하다.  
그 주제에 관련된 온갖 사실들을 신빙성을 기준으로 엄선하여 수록하고, 입장이 첨예한 것일수록 각 입장의 핵심적인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책.  
그 한 권을 읽고 나면  
입장의 차이와 주장의 신실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책.  
둘이 같이 한 권의 책을 읽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논지를 펼쳤을 때  
좀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책.

론을 증명하기 위해 재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논쟁을 위해서는 “중립적인 책”이 필요하다. 그 주제에 관련된 온갖 사실들을 신빙성을 기준으로 엄선하여 수록하고, 입장이 첨예한 것일수록 각 입장의 핵심적인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책. 그 한 권을 읽고 나면 입장의 차이와 주장의 신실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책. 둘이 같이 한 권의 책을 읽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논지를 펼쳤을 때 좀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책.

이쯤에서, 세상물정 모르는군,이라는 반론이 들리는 듯하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책이 과연 가능할까부터가 의문이다. 《담배는 숭고하다》를 쓴 저자가 책을 탈고하고 난 뒤 담배를 끊었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문제를 깊이 있고 정확하게 파악하면 할수록 입장을 갖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자기 입장을 가지게 되면 중립이라는 게 쉬운 것인가. 암암리에는 공공연하게든, 저자가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다. 오히려 그런 책들이 “중립”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사기에 가까워진다.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사안일수록 주장은 열렬하고 절박하다. 존 로빈스의 《음식혁명》을 읽고 냉정하기란 쉽지 않다. 치밀한 분석과 명료한 증거들을 감정적이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는 우매한 사람들과 죽어가는 지구를 바라보며 발 동동 구르는 저자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출판사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건강 시리즈를 펴낸 북라인의 책목록을 본다. 《슈거 블루스》, 《나는 풀 먹는 한의사다》, 《몸을 살리는 의학 몸을 죽이는 의학》, 《별난 한의사 손영기의 먹지마 건강법》, 《선식남녀, 우리는 가려서 먹는다》. 몇 권의 제목만 보아도 출판사의 입장이 선연하게 드러난다. 정신세계사나 개마고원, 현실문화연구와 같은 출판사는 이름만 들어도 그 책의 내용이 짐작된다. 뚜렷한 입장을 가진 출판사들의 책은 대체로 탄실하다. 오래 생각해서 그렇고, 설득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그렇다.

평화롭고 이성적인 논쟁을 위해 중립적인 책들을 원하지만, 중립적인 것이야말로 옳은 것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립적인 것은 믿을 수 없다. 중립적인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고백처럼 보인다. 충분히, 아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중립적이라는 그 어려운 경지를 누군가 이루었다는 건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대신, 두 권이 이룬 한 쌍의 세트는 어떨까? 이쪽 입장을 간결명료하게 정리한 책과 저쪽 입장을 간결명료하게 정리한 책, 이 두 권을 하나의 패키지로 엮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관계없는 두 권을 같은 판형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끼워 팔자는 게 아니다. 이런 기획의 경우, 편집자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각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이 만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미 나와 있는 책이나 번역서는 곤란. 두 명의 저자와 한 명의 편집자가 같이 작업하고, 이쪽 책의 주장에 대해 저쪽 책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사안마다 다른 쪽 책의 페이지를 꼼꼼히 체크해 준다. 양측이 주장하는 근거들이 맞는지 검증하는 것도 편집자의 역할이다. 편집자가 그 사안에 대해 아주 많이 아는 것은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균형감 각만큼은 정말 필요하겠다.

지나친 요약은 독자에게 불친절하므로 안 된다. 알팍한 다이제스트판으로 독자들에게 맛만 보여주는 것은 필요 없다. 만드는데 큰 공이 들고, 읽는데 수고롭더라도, 읽고 나면 적어도 그 쟁점에서만큼은 충분히 생각했다는 느낌을 주는 책. 어느 쪽이든 입장을 지지하게 되었을 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일말의 불편함이라도 남기지 않는 책. 그 쟁점에 대해 더 큰 관심이 생겼을 때 찾아 읽을 수 있는 서지목록을 제공하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책.

그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 권 사이에 벌어지는 냉정하고 간결한 논쟁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대리전이 될 것이다.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논쟁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 나온 결론을 점검해 보는 논쟁이라면 지금 내가 벌이는 논쟁의 양상과는 분명 다르겠지.

그런 책이 나온다면 가장 쌍수를 들고 환영할 사람들은 우리가 자주 가는 단골 카페의 주인들일지도 모른다. 논쟁을 빙자한 개싸움으로 카페를 들었다 놓았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 우아하게 이미지 관리하는 것까지는 안 바라도 남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될 텐데, 현재로서는 그것조차 쉽지 않다. **◆**

●이 글을 쓴 박사는 북칼럼니스트, 문화칼럼니스트 등으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만화와 영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명석과 함께 복합문화 프로젝트 사탕발림(www.sugarspray.com)을 운영하고 있다. 공저로 《고양이로서 다행이야》 《여행자의 로망백서》 등이 있다. (baxa@sugarspray.com)